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순구, 도은수*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Soon-Gu Kim, Eun-Su Do*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D시, K시, G도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간호학과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4 학년 학생 총 253명 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23일 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집단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요변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감성지능은 3.63점, 돌봄효능감은 3.69점, 회복탄력성은 3.79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46 점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3.4%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caring efficacy and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also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3 third and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 with clinical practice at 5 colleges in D and K cities and G do.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 to November 23, 2018. The data was then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PASW/WIN 20.0 progra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caring efficacy,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models was 43.4%. Therefore, these results imply the ne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caring efficacy,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cause all of these factors will contribute to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Key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Resilienc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Eun-Su Do(Daegu Health Univ.)

email: esdo@dhc.ac.kr

Received June 4,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vised July 1,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태도 등의 핵심간호역량을 갖추고[1],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직접 실무에 적용해봄으로써 대상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와 그 중재를 평가 및 재조정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된다[3].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 습득과 가치관과 태도, 이미지 형성 및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직업관을 정립하는데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3,4].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1000시간 이상 요구되는 필수교육과정으로[3]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간호교육의 현실은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간호학과 증설과 정원 증가로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병원 확보 문제와 학교에서 배운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습교육에 있어 질적인 부분이 저하되고 있다[3,5].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의 낮은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환자 돌봄에 대한 긴장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임상실습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과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서반응 정도를 의미한다[2].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6].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추후 간호현장에서 전문적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5].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감정성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8].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행

동을 보이나,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고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 즉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동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른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다[9]. 따라서 감성지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감성지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간호를 포함하는 돌봄은 간호수행의 중요한 속성으로[10], 돌봄효능감은 환자 돌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다[11]. 돌봄은 간호사와 환자 간의 진정한 상호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돌봄에 대한 지각이 높은 간호사는 사랑과 돌봄으로 전문성을 지닌 전인간호를 제공하였다[1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실제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총체적으로 통합하고 돌봄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13]. 간호대학생의 높은 돌봄효능감은 임상실습 중에 환경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습을 촉진시키고 자신감과 동기 부여를 높이므로, 이는 임상실습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의 미한다[14].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상황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적고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개인의 안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5]. 이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내어 효율적인 임상실습 수행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데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와 업무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 할 수 있고 진로 태도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2].

최근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성이 있는 요인들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

력,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서조절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7].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과 돌봄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에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K시, G도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학년간의 비율이 대략 1:1이 될 수 있도록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료수집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자료수집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효과크기(effect size) .15, 예측요인 9로 산출한 결과 166명이 요구되며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결측치가 포함된 17부를 제외하고 총 253부로 자료 분석하여 권장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긍정적 감성 성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8]. 본 연구에서는 Wong와 Law[8]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Jung[16]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인식 4문항, 타인감성 인식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성조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7이며, Jung[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 이었다.

2.3.2 돌봄 효능감

돌봄효능감은 환자와의 돌봄 관계 개발과 돌봄 중심의 표현, 태도, 행동과 관련되어 자신이 환자 돌봄에 대한 능력의 확신과 믿음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는 Coates[17]가 개발한 돌봄효능감 도구(Caring Efficacy Scale)를 Jeong[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 한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4-.88이며, Jeong[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2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1 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역경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는 Yang 등[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자신감 3문항, 관계성 4문항, 긍정성 4문항, 대처능력 2문항, 사회적 지지 4문항, 감정조절능력 4문항, 조직적 스타일 3문항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4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임상실습지도, 임상실습 환경과 임상실습 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반응의 정도를 의미한다[2]. 본 연구에서는 Jo와 Kang [21]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실습교과 3문항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PASW/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자가 206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3학년 125명(49.4%), 4학년 128명(50.6%)이었으며, 연령은 20-23세가 184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다'가 145명(57.3%), '있다'가 108명(42.7%)이었으며, 입학 동기는 '취업률'이 118명(46.6%), '적성과 취미'가 64명(25.3%) 순으로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139명(54.9%), '만족'이 107명(42.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 학년, 연령, 입학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공만족도 ($F=22.92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만족도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분석 결과 '만족'군이 '보통'군과 '불만족'군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pm SD)	t/F	p
Gender	Male	47(18.6)	3.56(\pm 0.53)	-.963	.337
	Female	206(81.4)	3.63(\pm 0.32)		
Grade	3rd	125(49.4)	3.67(\pm 0.43)	1.712	.088
	4nd	128(50.6)	3.57(\pm 0.34)		
Age	20-23	184(72.7)	3.61(\pm 0.32)	1.391	.251
	24-27	64(25.3)	3.63(\pm 0.57)		
	\geq 28	5(2.0)	3.94(\pm 0.27)		
Religion	Have	108(42.7)	3.66(\pm 0.39)	1.253	.211
	None	145(57.3)	3.59(\pm 0.38)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High school rate	18(7.1)	3.55(\pm 0.51)	2.635	.052
	Appropriate aptitude	64(25.3)	3.64(\pm 0.58)		
	Employment rate	118(46.6)	3.64(\pm 0.41)		
	Recommendation of others	50(19.8)	3.44(\pm 0.50)		
	Others	3(1.2)	3.67(\pm 0.27)		
Satisfaction on major	Dissatisfaction ^a	7(2.8)	2.97(\pm 0.13)	22.928	<.001
	Moderate ^b	139(54.9)	3.52(\pm 0.29)		
	Satisfaction ^c	107(42.3)	3.79(\pm 0.47)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차이

대상자의 감성지능 평균은 3.63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자기감성이해는 3.76점, 타인감성이해는 3.72점, 감성활용은 3.63점, 감성조절은 3.43점이었다. 돌봄효능감은 3.69점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3.79점으로 하위요인은 사회적지지(4.04점), 관계성(3.96점), 긍정성(3.92점), 자신감(3.72점), 대처능력(3.68점), 감정조절능력(3.68점), 조직적 스타일(3.50점) 순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3.46점이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실습교과(3.69점), 실습평가(3.53점), 실습환경(3.51점), 실습시간(3.43점), 실습지도(3.33점), 실습내용(3.30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resilienc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53)

Variables	Items	Range	M±SD
Emotional intelligence	16	1-5	3.63(±0.35)
Self emotional appraisal	4		3.76(±0.35)
Others emotional appraisal	4		3.72(±0.36)
Use of emotion	4		3.63(±0.38)
Regulation of emotion	4		3.43(±0.46)
Caring efficacy	30	1-5	3.69(±0.32)
Resilience	24	1-5	3.79(±0.34)
Self confidence	3		3.72(±0.48)
Relationship	4		3.96(±0.43)
Positivity	4		3.92(±0.44)
Coping ability	2		3.68(±0.57)
Social support	4		4.04(±0.42)
Emotional regulation	4		3.68(±0.51)
Structural style	3		3.50(±0.5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1	1-5	3.46(±0.32)
Practice subject	3		3.69(±0.39)
Practice contents	6		3.30(±0.35)
Practice guidance	9		3.33(±0.45)
Practice circumstance	7		3.51(±0.38)
Practice time	3		3.43(±0.55)
Practice evaluation	3		3.53(±0.47)

Table 4.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53)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965	.200		4.816	<.001
Caring efficacy	.287	.052	.338	5.370	<.001
Resilience	.238	.053	.246	4.200	<.001
Emotional intelligence	.205	.057	.225	3.966	<.001

R²=.441, Adj. R²=.434, F=65.452, p<.001

3.3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감성지능($r=.472, p<.001$), 돌봄효능감($r=.590, p<.001$), 회복탄력성($r=.549, p<.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resilienc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53)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Resilience
	r(p)	r(p)	r(p)
Caring efficacy	.628(<.001)		
Resilience	.406(<.001)	.436(<.00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472(<.001)	.590(<.001)	.549(<.001)

3.4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는 1.986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5.730, p<.001$).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56~.78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28~1.76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돌봄효능감($\beta=.338, p<.001$), 회복탄력성($\beta=.246, p<.001$), 감성지능($\beta=.225, p<.001$)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3.4%였다(Table 4).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5]과 같은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임상실습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며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보다 만족스러운 임상실습 경험을 하게 되어 높은 임상실습만족도로 연결된다. 이에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자기감성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마지막으로 감성조절이 가장 낮았다. 이는 Yoo[23]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간호대학생이 자기와 타인의 감성 이해는 높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감성활용과 감성조절 능력은 부족함을 반영한다. Lee와 Gu[24]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하였다. 이에 감성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신건강 및 전문직 수행의 관점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25], 감성활용과 감성조절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한다.

돌봄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6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며 간호교육과 실무의 핵심가치로서 간호대학생의 돌봄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간호교육에서 요구되고 있다[13].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11]. 이에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모델링을 통해 돌봄 지각을 배양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돌봄 경험의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호대학생들의 돌봄효능감은 향상될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26]의 연구에서는

3.74점으로 유사하였으며, Kim[15]의 연구에서는 3.56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이겨내게 하는 것으로[27], 간호사가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재적 역량이라 하였다[28].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임상실습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과,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한 회복탄력성 훈련이 필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7]의 3.42점과 유사하며, Jeon과 Kim[6]의 3.58점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하위 요인별로는 실습교과가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이 가장 낮았다. 이는 Jeon과 Kim[6]의 연구에서 실습교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Lee와 Kim[7] 연구에서 실습내용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실습내용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직접적인 간호제공의 영역이 거의 없고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습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실습환경 조성하고 간호를 직접 적용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Kim 등[5]의 결과와 일치하며, 돌봄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난 Jeon[12] 결과와 돌봄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Park[11]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간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임상실습만족도를 43.4%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돌봄효능감이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돌봄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Park[11]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돌봄경험을 하게 되므로, 임상실습만족도와 돌봄효능

감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돌봄에 대한 지각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와의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돌봄을 포함한 전인간호를 수행하며, 간호 실무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내어 간호사 자신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하였다[29]. 이는 돌봄효능감이 간호사의 업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돌봄에 대한 지각은 임상실습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는 돌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적용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 현장은 자신의 돌봄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은 회복탄력성이었다. Kim[26]은 회복탄력성을 자아탄력성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임상 및 교내실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30]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정신적인 저항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15].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는 임상실습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보이는 간호대학생에게 개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회복탄력성은 특히 필요한 요소이며, 이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적응 자원인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성지능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Kim 등[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감성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으로 인해 느끼는 소진의 정도가 낮고, 임상수행능력은 높다고 하였다[28]. 또한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의 상관관계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실습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2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에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의 개입이 많은 임상실습상황에서 즉각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단시간의 교육이나 일회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므로[24],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저학년에서부터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의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감성지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내 시뮬레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현장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키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순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43.4%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 있는 새로운 정서적 요인을 확인한 것과 돌봄효능감이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돌봄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실습기관의 분류 없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돌봄효능감, 회복탄력성, 감성지능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추후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해 비교해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및 적용 후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2] B. J. Park, S. J. Park, H. 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220-227,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7.220>
- [3] K. H. Yang, G. Y. Ko, M. H. Kim, K. S. Park, S. J. Park, "Strategies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 content analysis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Research*, Vol.2, No.1, pp.47-55, 2018.
- [4]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56-566,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4.556>
- [5] M. Y. Kim, E. H. Kang, E. K. Byun, "Influencing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99-1710, June 2017.
- [6] M. K. Jeon, M. S. Kim,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40-48,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1.40>
- [7]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197-208,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6.197>
- [8]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2-274, 2002. .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9]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36-5645, 2013.
DOI: <http://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10] J. Watson, "New dimension of human caring theory", *Nursing Science Quarterly*, Vol.1, No.4, pp.175-181, 1988.
- [11] E. J. Park,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Clinical Health Sciences, Seoul, Korea, pp.2-3, 8-11, 2018.
- [12] M. S. Jeon, Oncology nurses' resilienc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car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1-15, 2015.
- [13] S. A. Lee, H. J. Park,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or caring (K-NSP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9, No.12 pp.218-226,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218>
- [14] S. Y. Park, Y. h. Kwon, Y. S. Park,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ew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9, No.12 pp.218-226, 2018.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2.324>
- [15] S. Y. Kim,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1, January 2018.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1.12.1.253>
- [16]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ogic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labor",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0, No.3, pp.107-132, 2011.
DOI: <https://doi.org/10.29214/damis.2011.30.3.005>
- [17] C. J. Coates,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Essential readings in holistic nursing*, Vol.24, 1998.
- [18] J. O. Jeong,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39, 2016.
- [19] T. M. Stephens,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Vol.48, No.2, pp.125-133, 2013.
DOI: <https://doi.org/10.1111/nuf.12015>
- [20]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H. 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3, pp.337-346, June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 [21] G. J. J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 63-64, 1984.

- [22] S. H. Lee ,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 [23] S. Y. Yoo, “The relationships among focusing manner,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5, pp.781-799, 2017.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5.44>
- [24]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6, pp.682-696, December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6.682>
- [25] M. Y. Kim, E. H. Kang, E. K. Byun. "Influencing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99-1710, 2017.
- [26] M. J. K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linical Competency: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31-35, 2018.
- [27] Y. E. Lee, Y. N. Jang,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8, pp.646-657, August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646>
- [28] C. M. Ko,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search, Vol.25, No.2, pp.120-127, June 201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2.120>
- [29] G. J. Persky, J. W. Nelson, J. Watson, K. Bent, "Creating a profile of a nurse effective in car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Vol.32, No.1, pp.15-20,2008.
DOI: <http://dx.doi.org/10.1097/01.NAQ.0000305943.46440.77>
- [30]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41-350, August 2013.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3.19.3.341>

김 순 구(Soon-Gu Kim)

[중신회원]



- 1998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8월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아동 건강과 부모역할

도 은 수(Eun-Su Do)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간호, 만성질환자 간호